

2025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말이 트이고, 마음이 열린다: 글말교실과 함께한 나의 성장기]

이름	에르햄바야르
전공	경영정보학부
학번	20252093
참여 프로그램	V 1-on-1코칭 (조서형) V 글말특강 (4회차)

최근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어려움은 단연 언어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한국어를 꾸준히 공부해 왔지만, 수업에서 사용하는 전공 용어나 전공 서적에 나타나는 복잡한 문장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공 수업에서 교수님의 설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나, 중요한 개념을 놓쳐 당황했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업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공부를 하려니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수업 참여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언어의 장벽은 단순히 학업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인간관계, 특히 조별 과제나 발표에서 소통이 잘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해 어색한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심지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꺼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제 한국어 실력 부족이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표현 방식과 어휘에 익숙하지 않고, 말할 때 문장을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 수업 후에 다시 찾아 듣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보아야 했고, 질문하고 싶어도 말이 막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주저하면서 더 소극적으로 변해 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과 튜터링 수업을 통해 한국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실질적인 한국어 연습을 하고, 교양대학의 글말교실을 통해 글쓰기와 발표 연습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언어 감각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단순히 언어 실력 향상에 그치지 않고, 저의 자신감과 학업 태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도움이 되었던 건 이번 학기에 수강한 글쓰기 수업과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글말교실이었습니다. 조서형 교수님께서서는 저의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고, 때면 따뜻한 격려와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교수님의 도움 덕분에 처음에는 자신 없던 글쓰기가 점점 재미있어졌고, 글로 제 생각을 표현하는 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언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력을 쌓아간다면 언젠가는 자유롭게 표현하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업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어떤 문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자신이 생겼습니다.